

‘살기 좋은 행복 나주’...혁신 행정 ‘대전환’ 이끈다

민선 8기 3주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최대 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도시’ 입지 확고 공약 평가 SA등급·이행률 전국 평균 ↑

나주시가 민선 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실현을 위한 주요 시정 성과를 발표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사진) 시장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전남도 부지사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 행정가로 민선 8기 3년 동안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혁신 행정



으로 나주시정의 ‘대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윤병태 호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생활체육, 문화, 여가, 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집약된 이들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합혁신센터는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터 외에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

으로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완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노력,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개최 등 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되면서 나주는 에너지 수도로의 여정에 중추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오는 2032년까지 총 3천519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영산강 정원 조성 등과 함께 나주 영산강축제

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제는 36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전남도 정원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되며 나주는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보육과 출산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나주시는 출산장려금 확대, 출생기분수당 도입, 365일 시간제 보육, 아이썬속속서란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출생기분수당은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천32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교육 정책에서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고 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 내대용 융합 과학캠프 등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성과를 냈다.

이 같은 민선 8기 성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고, 공약 이행률 67.34%로 전국 평균보다 14.29%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속도감 있게 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3년은 변화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4년 차에는 500만 관광객시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에너지수도 완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양치유’ 완도서 전국 맨발 걷기 축제 열린다

12일 오후 5시 신지 명사십리 일원

‘해양치유의 날’ 선포식·체험 등 다채

완도군이 해양자원과 치유 걷기를 결합한 웰니스 축제로 초대한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5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사진에서) ‘2025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자연 속 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도의 해양치유 자원과 맨발 걷기를 결합해 치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축제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해양치유 완도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지정 선포식, 다채로운 해양치유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한다.

맨발 걷기 대회 참가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았으며, 당일 현장(명사십리 제1주차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걷기 동호인, 관광객, 주민 등 1천명이 넘는 인원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해변 필라테스와 엑서사이즈, 머드 팩, 꽃차 시음 등 완도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체험 존을 운영하며, 맨발 걷기 효능·기본 동작 설명 등 전국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식전 행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모래 해변(3km)과 황룻길(1.2km)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고, 완보한 참가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대회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당일 ‘완도 해양치유의 날(7월6일)’ 지정 선포식도 갖는다.

완도군은 전국 규모의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선포식을 통해 ‘해양치유 1번지 완도’를 널리 알리고 관광·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고운 모래길과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도시의 최대 50배나 많은 정도로 청정한 곳”이라며 “걷고, 치유하기에 최적지인 완도로 와서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 개최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 입소

무안군은 “최근 환경면 외란리에 건립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박성덕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장 등 지역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농업근로자 복지 시설로,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부지 면적 1천550㎡, 연면적 822㎡(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에는 24실의 숙소와 함께 식당, 주방, 체육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40명이 생활할 수 있다.

무안군은 지난 3월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와 공사를 거쳐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뜻 깊다”며 “입소한 근로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협력해 성실해 근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목포 마을서 통장 선임 놓고 갈등 ‘수면위’

불신임안 제출...주민의견 반영 요구

市 “규정대로 위촉...타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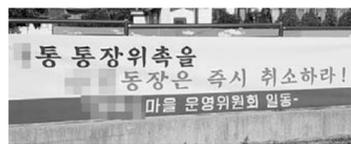
목포지역 한 마을에서 통장이 위촉한 통장 선임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9일 목포지역사회에 따르면 최근 목포 A동 마을주민들이 ‘통장 불신임안건 주민 동의 서명확인서’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서명은 마을회와 마을운영위원회 명의로 접수했으며 80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임시총회에서 선출한 통장을 무시하고, A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달 25일 위촉한 통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며 ‘목포시 통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2항’ 위반을 내세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장은 선임한 통장을 취소하고, 주



민이 뽑은 통장을 선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게첨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목포시 통장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통·반장은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통장은 공고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통장을 포함해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이통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북 제천시도 접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실정을 고려한 투표 방법으로 결정, 경기 이천시도 주민총회 또는 공동입주대표회의의 추천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목포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목포시 통장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다”며 “타 지자체의 시행 규정을 벤치마킹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통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공고중에 명시한 대로 자격을 충족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면접심사를 거쳐 6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선발했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불신임안건은 해촉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항은 통장의 고유 권한이다. 타 지자체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군민 안전 최우선’ 영암군, 폭염 총력 대응

긴급회의 개최...부서별 실행 방안 논의

폭염 실시간 안내·살수차·양산 대여 등

영암군이 최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영암군민 안전이 최우선’을 구호로 ‘폭염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부서별 종합대책 추진 상황, 폭염경보 발령 비상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영암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실행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점검회의 후 영암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매일 협업부서와 읍·면 25명의 직원이 비상근무하며 폭염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또한 영암군민이 폭염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마을방송과 안전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안부 살피기도 진행하고 있다. 영암군민 체감 현장 대책으로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살수차 3대가 주요 도로에 물뿌리기 작업도

실시 중이다.

현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양심양산 대여소’도 터미널, 복지회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로 빠른 시간 내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더위쉼터 327개소 운영 ▲그늘막 44개소 상시 관리 ▲자율방재단 고령 농업인 예찰 강화 등 총총한 안전망 가동으로 영암군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재광 영암부군수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은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사일과 같은 야외 활동을 반드시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모바일 결제 시 최대 15% 혜택

해남군은 9일 “이달부터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 5% 캐시백도 제공돼 최대 15%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품권은 지류와 카드·모바일로 구분해 판매되며, 지류 상품권은 2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반면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까지 가능해 혼합 구매 시 총 7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남군은 지류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카드·모바일 비중을 확대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QR결제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해남군은 카드·모바일 상품권의 충전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물하기’ 기능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했다.

해남군은 하반기 추가 발행분 600억원과 함께 민생경제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384개 경로당 ‘무더위 쉼터’ 전환

경로당별 냉방비 지원 등 폭염 대응

함평군은 9일 “전국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 38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5월부터 에어컨 작동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일제 청소를 실시했으며, 냉방비 35만원을 경로당별로 조기 지급했다.

고장난 에어컨이 있는 30개소에는 냉방기를 새

로 설치했고, 무릎 불편으로 바닥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4개소에 불박이 자도마를 깔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무더위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 냉방 환경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대응에 나섰다. <사진>

이 군수는 “경로당은 주민 모두를 위한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이라며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